한국심리학회지 : 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7, Vol. 8, No. 2, 111-131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비교: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신 기 숙[1)†] 이 종 수[1)] 이 지 원[1)] 이 언 담[2)]

[1)]서울지방교정청 [2)]교정본부 사회복귀과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 319명을 피해자 유형별로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 개인적 심리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대부분의 요인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심리적 특성에서는 정신병질 수준과 개인적 심리특성의 일부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범수,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 및 비면식 피해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연령과 유배우자 및 친족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공범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개인적 심리특성에서 성인대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PCL-R의 총점 및 요인 2(사회적 일탈성)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성적 환상 및 성을 이용한 대응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재범방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고려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범죄자, 피해자 연령유형, 범죄력, 심리특성, 심리치료

† 교신저자 : 신기숙,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E-mail : drshinks@gmail.com

www.kci.go.kr

2016년 10월, 오패산터널 총격전으로 경찰 한 명이 사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의 범인은 청소년대상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한 후 2014년 1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청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고의 압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는 분노감과 편집증적 사고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경향신문, 2016. 10. 28).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는 2011년 17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가 범죄방지의 만능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성범죄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강력 범죄 중의 하나였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신상정보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이 2008년 이후부터 입법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성범죄의 심각성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성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6). 2006년 14,277건 이었던 성범죄 발생이 2015년 31,06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전체 흉악강력범죄(성폭력, 방화, 강도, 살인)에서도 성범죄 발생이 87.5%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화, 강도, 살인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강력대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처벌 위주의 감시적, 통제적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범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범죄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신기숙, 2016; 윤정숙, 승재현, 최이문, 2015; 이수정, 위휘정, 2015). 재범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요인에 대한 검증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 요인으로는 정적 위험요인과 역동적 위험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위험요인은 재범과 관련하여 범죄자의 과거력과 같은 변화할 수 없는 요인으로 연령,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력, 혼인상태 및 피해자 관련 요인으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면식여부, 비친족여부 등이 포함된다. 즉 범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범죄의 과거력이 많을수록, 피해자가 남성 혹은 아동일 경우 또는 비친족이거나 비면식일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Hanson & Thornton, 2000; Andrew & Bonta, 2010).

역동적 위험요인은 성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로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Thornton(2002)은 성범죄자들의 역동적 요인을 4개의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성적 관심영역으로, 성적 몰입, 폭력적이고 힘을 사용하는 성행동의 선호, 아동 및 범죄와 관련된 일탈적인 성적 선호이다. 둘째는 왜곡된 태도 영역으로, 남성은 주도적이고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성에 대한 대립적 태도, 자기중심적 신념으로 남성이 성적

www.kci.go.kr

욕구를 느끼면 그 욕구를 해소할 특권이 있다는 성적 특권의식, 그리고 강간을 지지하는 신념이다. 셋째는 사회·정서적 기능 영역으로, 외로움, 낮은 자존감, 외적 통제감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적절감, 성인보다는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거나 또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달성하지 못하는 친밀감의 결핍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 의심으로 가득찬 부정적 사고이다. 마지막으로는, 자기관리 영역으로 충동적인 생활양식, 부족한 문제해결기술, 부족한 정서조절력이다. 성범죄자의 역동적 위험요인이 낮아졌을 때 재범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Hanson & Harris, 2000) 역동적 위험요인은 성범죄자 치료에서 주요한 목표가 된다.

Andrews와 Bonta(2010)는 범죄자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범죄행동을 하며 각 개인마다 위험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자의 위험성과 욕구, 반응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입 했을 때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위험성(risk)은 치료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적요인과 역동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치료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한다. 욕구(needs)는 범죄자의 역동적 위험성으로 범죄를 유발시키는 특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치료목표가 된다. 반응성(responsivity)은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치료환경을 조절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태도, 성향, 인지능력, 학습방식 등의 개인의 다양한 요인과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억제정책에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억제정책 뿐만 아니라 범죄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신기숙, 2016; 윤정숙 등, 2015). 치료 프로그램에서의 개입 효과성은 위험성/욕구/반응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범죄행동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Andrews & Bonta, 2010; Yates, Prescott, & Ward, 2010/2016). 성범죄자의 개인차를 고려하는데 있어 범죄자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유형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 및 욕구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유형 분류는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인대상 성범죄자', 가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 범죄 반복성을 기준으로 '초범 성범죄자'와 '재범 성범죄자'로 구분한다(강은영, 2003; 고려진, 이수정, 2008). 국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이러한 유형별 특성에 따른 범죄위험요인의 특성이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연구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력 및 의식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나 아동·청소년·성인 세 집단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1~2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거나(김지영, 박경래, 2008; 윤정숙 등, 2015; 장석헌, 김도우, 김미경, 2011), 특정집단 및 특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그쳤으며(박미랑, 이민식, 2014; 이수정, 고려진, 김재경, 2009), 일부 연구에서는(강은영,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정적 및 역동적 위험요인을 구별하여 검토하지는 못했다.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성범죄자를 피해자 유형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정적 및 역동적 위험요인

www.kci.go.kr

의 수준 및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현재까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인대상으로 구분하여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비교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죄특성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특히 엄중처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아동은 13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성범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정・보호기관 성범죄자 590명을 대상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자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비교한 강은영(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이나 성인대상보다 아동대상의 연령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은 청소년 대상이 가장 높고 아동대상이 가장 낮았다. 직업은 세 집단 모두 농업과 생산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의 경우 성인대상은 무배우자 비율이 74%인 반면, 아동대상은 유배우자 비율이 68%로 나타났다. 범죄전과는 성인대상(83.1%)의 전과 비율이 가장 높고, 아동대상(65.4%), 청소년대상(55.8%) 순으로 나타났는데 아동대상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동종전과가 더 많고 성인대상은 이종전과가 더 많았다. 공범의 경우 청소년대상(43.7%)이 가장 높고 성인대상(25.5%)과 아동대상(10.4%)은 대부분 단독범이었다. 피해자 특성에서는 아동대상의 면식과 친족비율(41.8%)이 성인대상(22.1%)과 청소년대상(28.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연구(김지영, 박경래, 2008)에서는 이들의 직업별 분포에서 미취업자와 생산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범죄 전과자는 62.8%로 나타났는데 이종전과 비율(67.3%)이 동종전과 비율(22.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직전 범죄와의 범행간격은 5년 이상(48%)이 가장 많았으며 3년 이내(13.2%), 2년 이내(11.4%), 1년 이내(5.3%) 순이었다. 강간범죄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는 10.3%로 나타났고, 피해대상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면식범죄가 더 많았고, 13세 미만(23.3%)이 13세 이상(15.2%)보다 친족비율이 훨씬 높았다. 윤정숙 등(2015)의 연구에서도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대다수(79.3%)가 낯선 사람으로 가족이나 아는 사람 비율이 20% 정도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가족과 아는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45% 정도로 높았고,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이 더 높았다.

www.kci.go.kr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정적 위험요인은 변화할 수 없는 특성인데 반해, 역동적 위험요인은 범죄유발요인이며 범죄자의 변화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역동적 위험요인이 변화되어야 한다(Hanson & Harris, 2001).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역동적 위험요인과 반사회성이 함께 높을 경우 성과 관련된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한다(Beech, Craig, & Browne, 2009). 일부 연구들에서 성범죄자의 반사회성과 관련한 정신병질적(psychopathic) 특성에 관하여 일반적 폭력범죄와는 관련성이 높은 반면 성범죄와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범죄 횟수와의 관계에서도 일관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조은경, 이수정; 1998), 많은 연구들에서 PCL-R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성범죄 재범율을 보였다(Rice & Harris, 1997; Hanson & Harris, 2000). 성범죄자 152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이수정 등, 2009)에서는 PCL-R의 총점 평균은 21.96이었으며 재범에 있어서는 요인 1(대인관계/정서성)보다 요인 2(사회적 일탈)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은 피해대상의 연령에 상관없이 공통점이 많은 반면 특정영역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영, 2003; 고려진, 이수정, 2008; Scully, 1990). 아동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의식비교(강은영, 2003)에서 모든 성범죄자가 여성을 성적인 대상 혹은 성적 상품으로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해 이중적이고 성차별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가장 낮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가장 높았다. 또한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성적 좌절감이 높았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여성에 대한 물화 및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강압적인 성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정숙 등(2015)의 연구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비해 여성에 대한 분노감 및 충동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힘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다. 성범죄의 동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지향이 범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적인 동기가 높은 반면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반사회적 경향이 높아 분노와 폭력에(Prentky, Lee, Knight, & Cerce, 1997: Porter, Fairweather, Drugge, Herve, Birt, & Boer, 2000) 더 동기화 되었다.

반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의 피해자 연령별 성범죄자의 자아존중감, 강간통념, 친밀감, 대인반응성,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가장 높았고, 강간통념은 성인대상 성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를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라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성인대상으로 나누어 정적위험성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 그리고 역동적 위험성과 관련된 개인적 심리특성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직업, 혼인상태, 학력에서 세 집단 간의

www.kci.go.kr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범죄력 요인들에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범수,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와 동종 및 이종범죄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범죄관련 요인들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범여부, 피해자의 성별과 면식 및 친족 여부, 범행당시 음주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성범죄자 피해자 유형별에 따른 개인적 심리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병질(PCL-R)특성과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피해자 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얻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범방지 및 심리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로 S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교정기관에 수용된 이후 S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되어 S교도소에 집금되어 있는 수형자들이다. 연구 대상자의 판결문, 범죄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적 심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8개의 척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PCL-R*의 경우 대부분 S교도소로 이송되기 이전에 실시하였다. 전체 322명 중 누락된 정보가 많은 3명을 제외한 31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으며, *PCL-R*은 303명, 개인적 심리특성 요인은 31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평가를 시작하기 전 제공된 정보가 연구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평가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 319명의 성범죄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84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이 80명(25.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55명(17.25%)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죄명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19명 중 강간이 246명(7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강제추행 55명(17.2%), 성매수 관련 8명(2.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추행 6명(1.9%), 위계 등 간음 및 공연음란/공중밀집장소 추행이 각각 2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범죄 죄명 분포

죄명	유형	빈도(%)
형법	강간	58(18.2)
	강제추행	22(6.9)
	소계	80(25.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147(46.1)
	강제추행	29(9.1)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2(0.6)
	카메라등을 이용한 추행	6(1.9)
	소계	184(5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강간	41(12.9)
	강제추행	4(1.2)
	위계등 간음	2(0.6)
	성매수 (강요, 알선영업행위등)	8(2.5)
	소계	55(17.2)

www.kci.go.kr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요인,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판결문, 공식적인 범죄기록 및 개인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개인면담은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혹은 성범죄자 심리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연령, 본 사건당시 직업과 혼인상태, 학력에 대해 확인하였다. 범죄력은 기관의 공식자료를 통해 범죄횟수와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 횟수가 분석되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횟수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수용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총 유죄선고 횟수는 벌금형 또는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 한해 분석하였다. 동종 및 이종범죄의 경우, 동종범죄는 성폭력관련 범죄로 벌금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은 경력을, 이종범죄는 성폭력관련 이외의 범죄로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범죄를 모두 포함하였다. 범죄관련 요인은 공범여부와 피해자의 성별, 면식여부, 친족여부 그리고 범행당시 음주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적 심리특성 요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정신병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Hare(1991)가 개발한 척도를 조은경과 이수정(2008)이 번안하여 표준화하였다. 총 20문항으로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총점은 0점에서 40점이며, 두 개의 요인점수와 4개의 단면점수로 구성된다. 요인 1은 대인관계/정서성을 측정하며 요인 2는 사회적 일탈을 측정한다. 단면 점수의 경우 단면 1은 대인관계를, 단면 2는 정서성을, 단면 3은 생활양식을, 단면 4는 반사회성을 측정한다. 조은경과 이수정(2008)의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자들은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사로 편향된 채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며, 평가자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들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며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Rosr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4이었다.

강간통념척도.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석재(1999)가 Burt(1980)의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9점 척도(1:매우 부정～9:매우 긍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도 .93이었다.

www.kci.go.kr

여성에 대한 적대감척도.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Check(1984)가 개발한 척도로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한 후 수용자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채점방식은 그렇다/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남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고, 강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heck(198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충동성척도. 충동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ratt(1959)이 개발한 충동성 척도-Ⅱ (Barratt Impulsiveness scale-Ⅱ)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며, 앞 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현수(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UCLA **고독감척도**.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 &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 Scale을 김옥수(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에 따라서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자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대인반응성척도. 일반적 공감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한 척도로 타인의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취해보려는 조망 수용, 소설이나 영화 등의 인물에 대한 공감,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 인간적 고통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측정한다.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한 후 수용자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총 28개 문항으로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반응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적절한 성적 환상척도. 다양한 성적 환상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ohnston과 Ward(1996)가 개발한 척도로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한 후 수용자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총 40개 문항으로 0점에서 6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성적 환상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 몇 가지 문항을 예로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섹스를 한다", "다른 사람이 소변보는 것을 보며 흥분한다", "채찍질 당하거나 맞는다" 등의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다.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Coping Using Sex Inventory).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성인 및 아동과의 관계에서 동의한 혹은 강제적인 성적 행동에 동의하는지를 측정하기

www.kci.go.kr

위해 Cortoni와 Marshall(2001)이 개발한 척도로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한 후 수용자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환상, 자위, 포르노그래피의 이용, 성인 또는 아동과의 성적 행동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으로 대응하는 정도가 높다. Cortoni와 Marshall(2001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과 직업, 혼인상태, 학력에 대한 χ^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먼저, 성범죄자 유형간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8, N=319)=83.1$, $p<.001$.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46세 이상의 연령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25세 이하의 연령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26~45세 연령에 훨씬 더 많았다. 세 집단 간에 연령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316)=24.6$, $p<.001$(표 3 참조). *Scheffe*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M=45.3$, $SD=11.8$),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이었고($M=40.1$, $SD=10.8$),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연령은 가장 낮았다($M=33.1$, $SD=14.0$).

직업에서도 세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2(8, N=319)=26.7$, $p<.001$, 청소년대상 집단에서 무직과 유흥업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았고, 아동대상과 성인대상 집단은 노동자가 더 많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chi^2(4, N=319)=35.7$, $p<.001$, 아동대상 집단이 청소년과 성인대상 집단에 비해 유배우자와 이혼/사별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에 청소년과 성인대상 집단은 비혼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세 집단 간에 학력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8, N=319)=12.35$, *ns.*. 전체적으로 고졸이상 학력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대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중졸학력 비율이 높았지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범죄력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집단 간의 범죄력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범수,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 횟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세 집단 간에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범수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F(2, 316)=23.0$, $p<.001$, *Scheffe*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인대상 집단($M=3.1$, $SD=2.6$)이 청소년대상 집단($M=1.7$, $SD=1.7$), 아동대상 집단($M=1.5$, $SD=1.3$)에 비해 범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청소년대상과 아동대상 집단 간의 범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용횟수에서도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316)$

www.kci.go.kr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피해대상		아동대상 (n=126)	청소년대상 (n=79)	성인대상 (n=114)	전체 (n=319)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5세 이하	9(7.1%)	35(44.3%)	7(6.1%)	51(16.0%)	83.08*** (df=8)
	26~35세	20(15.9%)	15(19.0%)	34(29.8%)	69(21.6%)	
	36~45세	31(24.6%)	12(15.2%)	41(36.0%)	84(26.3%)	
	46~55세	41(32.5%)	9(11.4%)	22(19.3%)	72(22.6%)	
	56세 이상	25(19.8%)	8((10.1%)	10(8.8%)	43(13.5%)	
직업	자영업	19(15.1%)	9(11.4%)	16(14.0%)	44(13.8%)	26.78*** (df=8)
	노동자(사무직 포함)	61(48.4%)	27(34.2%)	57(50.0%)	145(45.5%)	
	유흥업소	2(1.6%)	11(13.9%)	4(3.5%)	17(5.3%)	
	무직	27(21.4%)	26(32.9%)	32(28.1%)	85(26.6%)	
	기타	17(13.5%)	6(7.6%)	5(4.4%)	28(8.8%)	
혼인 상태	유배우자	47(37.3%)	15(19.0%)	21(18.4%)	83(26.0%)	35.75*** (df=4)
	비혼	38(30.2%)	52(65.8%)	72(63.2%)	162(50.8%)	
	이혼/사별	41(32.5%)	12(15.2%)	21(18.4%)	74(23.2%)	
학력	무학	10(7.9%)	3(3.8%)	5(4.4%)	18(5.7%)	12.35 (df=8)
	초졸	17(13.5%)	10(12.7%)	20(17.5%)	47(14.7%)	
	중졸	30(23.8%)	32(40.5%)	28(24.6%)	90(28.2%)	
	고졸	53(42.1%)	28(35.4%)	53(46.5%)	134(42.0%)	
	초대졸 이상	16(12.7%)	6(7.6%)	8(7.0%)	30(9.4%)	

*** $p<.001$

표 3. 연령에 대한 One-Way ANOVA

피해 대상	아동대상(a) (n=126)	청소년대상(b) (n=79)	성인대상(c) (n=114)	전체 (n=319)	F (2, 316)	*Scheffe*검증
	M(SD)	M(SD)	M(SD)	M(SD)		
연령	45.3(11.8)	33.1(14.0)	40.1(10.8)	40.4(12.9)	24.64***	a>c>b

*** $p<.001$

www.kci.go.kr

표 4. 범죄력

피해대상	아동대상(a) (n=126)	청소년대상(b) (n=79)	성인대상(c) (n=114)	전체 (n=319)	*F* (2, 316)	*Scheffe*검증
	M(SD)	M(SD)	M(SD)	M(SD)		
범수	1.5(1.3)	1.7(1.7)	3.1(2.6)	2.1(2.1)	23.0***	c>b,a
수용횟수	1.7(1.6)	2.0(1.8)	3.6(2.6)	2.5(2.2)	27.3***	c>b,a
총 유죄선고	5.2(6.9)	5.8(5.6)	8.8(7.5)	6.6(7.0)	9.1***	c>b,a

*** $p<.001$

=27.3, $p<.001$. *Scheffe*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인대상 집단((M=3.6, SD=2.6)이 청소년대상 집단(M=2.0, SD=1.8)과 아동대상 집단(M=1.7, SD=1.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청소년 대상 집단과 아동집단 대상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총 유죄선고 횟수에서도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316)=9.1$, $p<.0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성인대상 집단(M=8.8, SD=7.5)이 청소년대상 집단(M=5.8, SD=5.6)과 아동대상 집단(M=5.2, SD=6.9)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청소년대상과 아동대상 집단 간의 총 유죄선고 횟수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범죄 이전 동종 및 이종범죄 여부에 대한 χ^2 독립성 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동종범죄 $\chi^2(2, N=319)=41.4$, $p<.001$, 이종범죄 $\chi^2(8, N=319)=35.5$, $p<.001$, 모두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대상 집단이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집단에 비해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동종범죄 보다는 이종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동종범죄자 및 이종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 기간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표 7 참조). 그 결과 동종 및 이종범죄 기간에 따른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chi^2(10, N=139)=4.92$, $\chi^2(10, N=163)=6.73$). 그러나 동종 및 이종범죄 기간에 있어서는 1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가장 높은

표 5. 동종 및 이종범죄 여부

피해대상		아동대상 (n=126)	청소년대상 (n=79)	성인대상 (n=114)	전체 (n=319)	χ^2 (df=2)
동종 범죄여부	있음	38(30.2%)	24(30.4%)	77(67.5%)	139(43.6%)	41.45***
	없음	88(69.8%)	55(69.6%)	37(32.5%)	180(56.4%)	
이종 범죄여부	있음	41(32.5%)	41(51.9%)	81(71.1%)	163(51.1%)	35.55***
	없음	85(67.5%)	38(48.1%)	33(28.9%)	156(48.9%)	

*** $p<.001$

www.kci.go.kr

표 6. 동종범죄 기간

		아동대상 (n=38)	청소년대상 (n=24)	성인대상 (n=77)	전체 (n=139)	χ^2 (df=10)
동종 범죄기간	1년미만	13(34.2%)	6(25.0%)	19(24.7%)	38(27.3%)	4.92
	1년~2년미만	4(10.5%)	6(25.0%)	15(19.5%)	25(18.0%)	
	2년~3년미만	2(5.3%)	2(8.3%)	7(9.1%)	11(7.9%)	
	3년~4년미만	2(5.3%)	1(4.2%)	2(2.6%)	5(3.6%)	
	4년~5년미만	4(10.5%)	1(4.2%)	5(6.5%)	10(7.2%)	
	5년이상	13(34.2%)	8(33.3%)	29(37.7%)	50(36.05)	

표 7. 이종범죄 기간

		아동대상 (n=41)	청소년대상 (n=41)	성인대상 (n=81)	전체 (n=163)	χ^2 (df=10)
이종 범죄기간	1년미만	8(19.5%)	14(34.1%)	22(27.2%)	44(27.0%)	6.73
	1년~2년미만	7(17.1%)	6(14.6%)	9(11.1%)	22(13.5%)	
	2년~3년미만	7(17.1%)	4(9.8%)	2(9.9%)	19(11.7%)	
	3년~4년미만	2(4.9%)	4(9.8%)	6(7.4%)	12(7.4%)	
	4년~5년미만	3(7.3%)	1(2.4%)	8(9.9%)	12(7.4%)	
	5년이상	14(34.1%)	12(29.3%)	28(34.6%)	54(33.1%)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소 후 1년 이내의 재범이 동종 및 이종범죄 모두에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내의 재범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대상은 동종범죄에 청소년 및 성인대상은 이종범죄에 더 높게 나타났다.

범죄관련 요인

5개 범죄관련 요인들에 대해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범죄관련 요인은 공범여부와 피해자의 면식 및 친족 여부 요인이다.

우선, 세 집단 간의 공범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2, N=319)=54.11$, $p<.001$. 아동대상과 성인대상 집단은 대부분이 단독범행을 하지만 청소년대상 집단은 공범의 비율이 33%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범자 26명의 경우 연령평균이 23.6세 ($SD=6.2$)로 전체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비해서도 평균연령이 더 낮았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24세 이하가 19명(73.1%)으로 가장 많았다(표 9 참조). 범죄유

www.kci.go.kr

표 8. 범죄관련 요인

			아동대상(a) (n=126)	청소년대상(b) (n=79)	성인대상(c) (n=114)	전체 (n=319)	χ^2 (df=2)
공범여부		있음	1(0.8%)	26(32.9%)	8(7.0%)	35(11.0%)	54.11***
		없음	125(99.2%)	53(67.1%)	106(93.0%)	284(89.0%)	
피해자	성별	남	3(2.4%)	2(2.5%)	1(0.9%)	6(1.9%)	0.97
		여	123(97.6%)	77(97.5%)	113(99.1%)	313(98.1%)	
	면식 여부	면식	78(61.9%)	49(62.0%)	34(29.8%)	161(50.5%)	30.24***
		비면식	48(38.1%)	30(38.0%)	80(70.2%)	158(49.5%)	
	친족 여부	친족	40(31.7%)	6(7.6%)	1(0.9%)	47(14.7%)	49.65***
		비친족	86(68.3%)	73(92.4%)	113(99.1%)	272(85.3%)	
범행당시 음주여부		있음	47(37.3%)	31(39.2%)	56(49.1%)	134(42.0%)	3.76
		없음	79(62.7%)	48(60.8%)	58(50.9%)	185(58.0%)	

*** $p<.001$

형의 경우, 강간이 18명(69.3%)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성범죄 유형에 비해 강요행위 및 알선 영업행위 등이 각각 3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성매수 등과 관련한 독특한 범죄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에서는, 먼저 면식여부에서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집단은 피해자가 면식인 경우가 62%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성인대상 집단의 경우 피해자가 면식인 경우가 30% 정도였다, $\chi^2(2, N=319)=30.24$, $p<.001$. 피해자의 친족여부에서는 청소년대상과 성인대상 집단은 각각 7.6%, 0.9%로 나타난 반면, 아동대상 집단의 친족 피해자 비율은 31.7%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chi^2(2, N=319)=49.65$, $p<.001$.

범죄관련 요인 중에서 피해자 성별과 범행당시 음주여부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피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여자였고, 범행당시 음주여부에서 성인대상 집단이 아동대상 및 청소년대상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음주비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범자 특성(n=26)

	구분	빈도(%)
연령	19세~24세	19(73.1)
	25세~30세	4(15.4)
	31세 이상	3(11.5)
범죄 유형	강간	18(69.3)
	강제추행	2(7.7)
	강요행위	3(11.5)
	알선영업행위 등	3(11.5)

www.kci.go.kr

개인적 심리특성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집단 간의 범죄와 관련된 개인적 심리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병질(PCL-R) 및 8개의 관련 요인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표 11 참조). 그 결과 일부요인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병질(PCL-R) 특성

먼저 정신병질과 관련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총점과 단면3, 단면4, 요인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참조). 총점의 경우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2, 300)=18.2$, $p<.001$,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인대상 집단($M=14.1$, $SD=7.0$)과 청소년대상 집단($M=13.0$, $SD=7.0$)이 아동대상 집단($M=9.1$, $SD=5.6$)에 비해 총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대상과 청소년대상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단면3, $F(2, 300)=22.0$, $p<.001$, 단면4, $F(2, 300)=19.5$, $p<.001$, 요인2, $F(2, 300)=25.7$, $p<.001$,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세 요인 모두에서 성인대상 및 청소년대상 집단이 아동대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성인대상과 청소년대상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대상과 청소년대상 집단이 아동대상 집단에 비해 사회적 일탈을 특징할 수 있는 생활양식과 반사회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와 정서성을 나타내는 단면1, 단면2, 요인1 에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 영역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성인대상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청소년대상 집단이, 그리고 아동대

표 10. 정신병질 특성(PCL-R)

	아동대상(a) (n=115)	청소년대상(b) (n=76)	성인대상(c) (n=112)	전체 (n=303)	*F* (2, 300)	*Scheffe* 검증
	M(SD)	M(SD)	M(SD)	M(SD)		
총점	9.1(5.6)	13.0(7.0)	14.1(7.0)	11.9(6.8)	18.25***	b, c>a
단면1	1.3(1.7)	1.5(1.7)	1.6(1.9)	1.4(1.7)	0.92	
단면2	3.2(2.0)	3.2(2.0)	3.7(2.3)	3.4(2.1)	2.18	
요인1	4.5(3.2)	4.7(3.1)	5.4(3.6)	4.9(3.4)	2.21	
단면3	2.3(2.1)	3.9(2.3)	4.2(2.5)	3.4(2.4)	22.07***	b, c>a
단면4	1.8(1.8)	3.4(2.7)	3.5(2.2)	2.9(2.3)	19.53***	b, c>a
요인2	4.2(3.5)	7.3(4.6)	7.8(4.2)	6.3(4.4)	25.79***	b, c>a

*** $p<.001$

주. 요인1: 대인관계/정서성(단면1: 대인관계, 단면2: 정서성),
요인2: 사회적 일탈(단면3: 생활양식, 단면4: 반사회성)

www.kci.go.kr

상 집단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심리특성 요인

성범죄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개인적 심리특성과 관련된 8개의 요인들에 대해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사이의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우선,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315)=6.2$, $p<.01$. *Scheffe*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대상 집단이 성인대상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아동대상 집단과 다른 두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적환상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성을 이용한 대응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각각 $F(2, 315)=5.3$, $p<.01$, $F(2, 315)=7.9$, $p<.001$). *Scheffe*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적환상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성을 이용한 대응 둘 다에서 성인대상 집단이 아동대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청소년대상 집단은 아동대상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두 집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 집단 간의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충동성, 고독감, 대인반응성 요인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강간통념과 여성에 대한 적대감의 경우 성인대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충동성에서는 청소년대상 집단이, 고독감은 성인대상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대인반응성의 경우 아동대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개인적 심리특성과 관련된 요인

	아동대상(a) (n=126)	청소년대상(b) (n=79)	성인대상(c) (n=113)	전체 (n=318)	*F* (2, 315)	*Scheffe*검증
	M(SD)	M(SD)	M(SD)	M(SD)		
자아존중감	29.7(5.4)	31.0(5.4)	28.1(6.2)	29.5(5.8)	6.26**	b>c
강간통념	45.1(28.6)	48.3(23.8)	51.8(27.8)	48.3(27.2)	1.80	
여성적대감	9.7(5.1)	9.5(4.9)	10.9(5.0)	10.1(5.0)	2.46	
충동성	39.9(16.0)	40.30(15.49)	36.3(13.5)	38.7(15.1)	2.24	
고독감	36.0(10.6)	34.8(10.9)	38.5(10.6)	36.6(10.7)	2.95	
대인반응성	64.5(11.7)	61.7(12.2)	62.1(9.8)	63.0(11.3)	2.01	
성적환상	43.4(27.3)	52.3(27.4)	55.0(30.7)	49.8(29.0)	5.31**	c>a
성을 이용한 대응	15.5(9.2)	16.8(8.5)	19.8(6.8)	17.4(8.4)	7.90***	c>a

*** $p<.001$, ** $p<.01$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대상과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적 위험성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 역동적 위험성과 관련된 개인적 심리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 나타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 높고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가 70% 정도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연령이 더 낮고 결혼경험이 없는 경우가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도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강은영, 2003; 윤정숙 등, 2015; Apfelberg, Sugar, & Pfeffer, 1994; Beech et al., 2009: Hanson & Harris, 2000; West, 1983),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무배우자 비율이 높은 반면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유배우자 비율이 더 높았다(강은영, 2003). 직업에서는 세 집단 모두 노동자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무직과 유흥업소 비율이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 높고 유배우자 비율도 가장 많으며, 무직의 비율은 낮은 특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연령이 가장 낮고 결혼경험이 없으며 직업에서 무직과 유흥업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이지만 결혼경험이 없는 경우가 63%로, 결혼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과 지속적인 친밀감을 형성한 경험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범죄력에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범수,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 횟수가 가장 높고,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가장 낮았다. 동종 및 이종범죄 비율도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가장 높았으며, 재범기간에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종범죄기간은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1년 이내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이종범죄에서 1년 이내 재범비율이 높았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높은 범죄력은 이들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범죄성향이 높을 수 있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전반적인 범죄력은 가장 낮은 반면 1년 이내 동종범죄에서는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이들이 성적인 동기로 인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윤정숙 등, 2015; Porter et al., 2000).

셋째로 범죄관련 요인들의 경우, 아동대상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대부분 단독범행인 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공범율(33%)이 높았다. 피해자의 경우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면식비율(62%)이 높았으며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친족비율(32%)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비면식(70%)이 대부분이었다. 성범죄자의 재범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비면식일 경우 높고(Hanson & Thornton, 2000; Andrew & Bonta, 2010), 친족일 경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Hanson & Thornton, 2000; Song, Lieb, 1994)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대상과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집단적 성행동의 특성이 있는 것과(강은영, 2003; 신기숙, 조성호, 2009) 유사하게 본 연구

www.kci.go.kr

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상대적으로 저연령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문화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시사하며,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청소년의 성매수 등과 관련한 유흥·퇴폐산업의 활성화가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사료된다.

넷째로 개인적 심리특성에서는, 정신병질과 관련하여 PCL-R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총점에서 성인대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요인 2의 사회적 일탈성을 측정하는 생활양식과 반사회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성적환상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을 이용한 대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CL-R의 경우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높으며, 특히 요인 2는 재범과의 관련성이 훨씬 더 높다(이수정 등, 2009; Hanson & Harris, 2000). 그리고 반사회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폭력범죄를 포함한 일반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일탈적 성적 행동의 선호와 반사회성이 함께 공존했을 때 성적 재범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Craig, Browne, & Beech, 2008; Hanson & Bussière, 1998; Roberts, Doren, & Thornton, 2002; Seto, Harris, Rice, & Barbaree, 2004). 본 연구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상대적으로 정신병질 특성 및 성적환상과 성적대응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정신병질 특성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범 위험성 양상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된다.

강간통념과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왜곡된 태도와 충동적인 생활양식, 관계에서의 고독감과 대인반응성은 세 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강간통념과 여성에 대한 적대감 및 고독감이 높았으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좀 더 충동적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대인반응성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강간통념과 여성에 대한 분노감이 높고(강은영, 2003; 윤정숙 등,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특징을 보였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비해 성적인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윤정숙 등, 2015; Prentky et al., 1997: Porter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성적동기와 관련된 성적환상과 성적대응은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훨씬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성범죄자는 피해대상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특성, 정신병질과 관련한 PCL-R 점수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특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성범죄자의 개인적 심리특성의 경우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적위험성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들은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PCL-R을 제외한 개인적 심리특성은 자기보고 방법으로 측정되어 대상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성범죄자의 역동적 위험성에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깊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www.kci.go.kr

둘째, 성적 일탈성과 관련한 피해자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본 연구의 측정방법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들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성적 일탈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Beech et al., 2009; Craig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의 제한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성적 일탈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와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향후 성범죄자들의 성적 일탈성에 대해 간접적 및 객관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한다면 좀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대상자를 피해자 연령유형을 통해 구분하는데 있어 현재(본건)의 범죄만을 기준으로 아동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으로 구분하여 동종범죄가 있는 경우 혼합형 범죄를 별도로 분류하지 못해 피해자 유형별 특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식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 범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및 서면질의를 포함한 다양한 탐색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혼합형 범죄자를 추가할 수 있다면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성범죄자의 특성이 좀 더 명료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폭력을 포함한 다른 범죄자 및 일반인들과의 차이는 검토되지 못했다. 향후 성범죄자 특성이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심리특성에서 일반인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성범죄자의 유형별 특성이 좀 더 명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재범방지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응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성 수준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대상자보다 정적 위험과 관련된 요인에서 높은 수준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범죄력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재범의 가능성은 높을 수 있어(Craig et al,. 2008; Hanson & Bussière, 1998)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전체 범죄성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도 재범과 관련이 높은 비면식이며, PCL-R에서도 총점과 사회적 일탈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강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욕구 수준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적 심리특성은 전체 영역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성적인 대응과 환상에서 유의하게 높고 여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결혼 경험 및 배우자와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 친밀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인관계에서의 반응성이 높은 반면,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친밀한 대상과의 결혼생활 경험이 거의 없고 정서적 고독감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은 반면 아동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 있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상대적

www.kci.go.kr

으로 더 많이 경험 할 수 있는데 이를 부적절한 성적활동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고 충동적인 생활방식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심리치료에서 이러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반응성 수준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연령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무학수준이 많고, 친족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심리치료에서 반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은영 (2003).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향신문 (2016. 10. 28). 오패산 총격범 “불특정 다수향한 왜곡된 분노감이 극대화돼 경찰관 공격”. 사회면.

고려진, 이수정 (2008). 아동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161-178.

김지영, 박경래 (2008). **2008년 제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0년부터 2007년간 성범죄추세**.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박미랑, 이민식 (2014).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결정인자 평가 연구. **한국경찰연구**, 13(3), 53-80.

신기숙, 조성호 (200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58-59.

신기숙 (2016).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고찰. **교정담론**, 10(2), 211-240.

이수정, 고려진, 김재경 (2009).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의 구성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57-71.

이수정, 위휘정 (2015).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14(4), 403-428.

윤정숙, 승재현, 최이문 (2015).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석헌, 김도우, 김미경 (2011).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1), 13, 133-154.

조은경, 이수정 (2008).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 지침서. (R. D. Hare 저, 조은경, 이수정 역).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Andrews D. A., & Bonta, J. (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5th ed.). Cincinnati, OH: Anderson.

Apfelberg, B., Sugar, C., & Pfeffer, A. Z. (1994). A psychiatric study of 250 sex offen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0,* 762-770.

Beech, A. R., Craig, L. A., & Browne, K. D. (2009).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ex offender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Ltd.

Craig, L. A., Browne, K. D., & Beech, A. R. (2008). *Assessing risk in sex offenders: A practitioner's guide*.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Ltd.

www.kci.go.kr

Hanson, R. K., & Bussiè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Hanson, R. K., & Harris, A. (2000). When should we intervene? Dynamic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6-35.

Hanson, R. K., & Harris, A. (2001). A structured approach to evaluating change among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 105-122,

Hanson, R. K., & Thornton, D. (2000). Improving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three actuarial scales. *Law and human behavior. 24*(1), 119.

Porter, S., Fairweather, D., Drugge, J., Herve, H., Birt, A., & Boer, D. P. (2000). Profiles of Psychopathy in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2): 216-233.

Prentky, R. A., Lee, A. F. S., Knight, R. A., & Cerce, D. (1997). Recidivism Rates among child Molesters and Rapists: A Methodological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1*(6): 635-659.

Rice, M. E., & Harris, G. T. (1997). Cross-validation and extens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for child molesters and rapists. *Law and Human Behavior, 21*, 231-241.

Roberts, C. F., Doren, D. M., & Thornton, D. (2002). Dimension associated with assessments of sex offender recidivism risk.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 569-589.

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Cambridge: Unwin Hynam.

Seto, M. C., Harris, G. T., Rice, M. E., & Barbaree, H. E. (2004). The screening scale for pedophilic interests predicts recidivism among adult sex offenders with child victims. *Sexual Behavior, 33*(5), 455-466.

Song, L., & Lieb, R. (1994). *Adult Sex Offender Recidivism*: A Review of Studies.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Thornton, D. (2002). Constructing and testing a framework for dynamic risk assessment.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4*(2), 139-153.

West, D. J. (1983). Sex offences and offending. In M. Tonry &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pp.18323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Yates, P. M., Prescott, D. S., & Ward, T. (2016). 성범죄자 치료 〔Applying the good lives and self-regulation models to sex offender treatment: A practical guide for clinicians〕 (신기숙, 심진섭, 이종수, 이지원, 전은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1 차원고접수 : 2017. 05. 04.
심사통과접수 : 2017. 06. 12.
최종원고접수 : 2017. 06. 2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7, Vol. 8, No. 2, 111-131

Comparison of Sex Offenders According to Victims' Age - Focusing on Child, Juvenile, and Adult Victims

Kisook Shin[1)] Jongsoo Lee[1)] Jeewon Lee[1)] Undam Lee[2)]

[1)]Seoul Regional Corrections Headquarters [2)]Korea Correctional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according to victims' age. 319 sex offenders who were incarcerate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ere classified as the sex offenders against child, Juvenile, and adult victims and examined by demographic factors, the number of crimes and crime related factors, and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x offenders against adult victim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umber of crimes and incarcerated, the total number of convictions, and the percentage of stranger victims and the sex offenders against child victims were the highest percentage in aged, married partners, and related victims and the sex offenders against juvenile victims were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in the accomplice. In the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high level of PCL-R total score and factor 2 (social deviation) in the sex offenders of adult victims and juvenile victims and the sex offenders of adult victims showed the highest in the level of sexual fantasy and coping using sex, and the sex offenders against juvenile victim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elf-esteem.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he operation of the psychotherapy program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 offenders, victims' age, the history of crim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sychotherapy.

www.kci.go.kr